



새해의 큰 약재로 떠올랐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를 확정하면서 삭풍이 훈풍으로 바뀌고 있다.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 임박에 오픈페이 등 국내 카드사들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살을 예는 추위는 여전하지만 얼음 밑 계곡물은 힘차게 흐르고 다가올 봄을 기다리고 있다.

금투세 2년 유예 확정 ‘땅 땅 땅’ ①

5천만 원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5년 시행 확정.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부과하기로 해 우려 제기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단계적 인하 방침.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구분	현행			개정안		
	지분율	보유금액	판정기준	지분율	보유금액	판정기준
코스피	1%		친족 등 합산	삭제	절충안: 10억원 (현행유지)	본인만 계산
코스닥	2%	10억원				
코넥스	4%					

금투세 2년 유예 확정 ‘땅 땅 땅’ ②



금투세 유예 환영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조치**에 갑론을박.
당초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 하에 기존 10억 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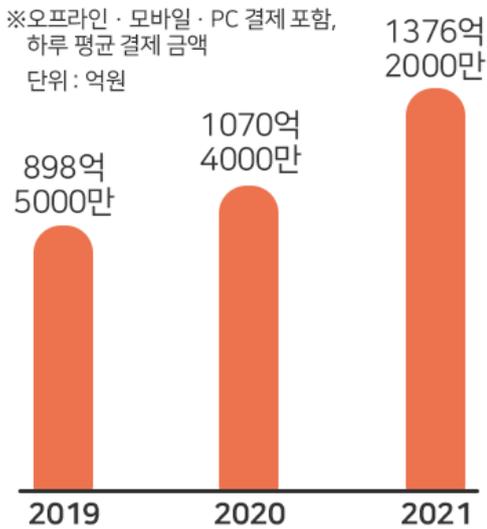
✓ 이슈 분석 가족 지분 합산 이슈는?

- 1 대주주 여부 판정하는 기준에서 가족 지분을 합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 2023년 폐지
- 2 정부는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홀로 10억 원 넘게 주식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人)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꿀 방침
- 3 주식 보유액을 판단할 때 대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
- 4 투자자 본인이 소액 주주임에도 가족 보유 주식까지 합쳐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개인이 모든 가족의 주식 보유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세 부담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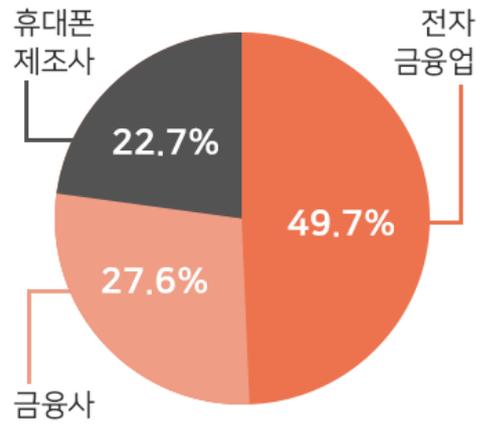
애플페이, 내가 왔다 ❶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출시 8년여 만에 국내 상륙 임박.
 국내 시장을 삼성페이가 독점하고 있으며, 애플페이 결제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로
 초반에 국내 시장 안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스마트폰페이 시장 규모



2021년 업종별 간편결제 점유율



자료 : 한국은행

애플페이, 내가 왔다 ②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으로 카드사들의 간편결제 연동 서비스 '오픈페이' 개시.
신한·KB국민·하나카드 3개사 우선 서비스 시작.

✓ 이슈 분석 오픈페이는 무엇?

- 현재까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는 2023년 하반기부터 가능
- 온라인 쇼핑물이나 결제대행사(PG)별로 결제 시스템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추가 검토 진행 중

카드사 오픈페이 참여 현황

- **참여 (서비스 론칭)**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 **참여 확정**
롯데카드(2023년 2월), 비씨카드(2023년 3월), NH농협카드(2023년 하반기)
- **참여 예정**
우리카드, 현대카드

'오픈페이란'?

'앱카드 상호연동 서비스'(오픈페이)는 1개의 카드사 결제앱(플랫폼)으로 카드사(발급사) 구분없이 모든 카드를 간편하게 등록·사용·조회할 수 있는 카드업계 통합 간편결제 서비스.

AI가 AI를 만든다? ‘알파코드’



구글의 AI 자회사 딥마인드는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최근호에 '알파코드'에 대한 논문 발표.
알파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시스템, 즉 코드를 생성하는 AI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인간 개발자 수준으로 수행하는데 성공.

돋보기 문제 해결력을 지닌 AI의 탄생

-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코드는 지난해 2월 5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한 온라인 코딩대회에 참석, 상위 54% 수준을 달성
- 이 대회는 매회마다 수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는데, 몇 시간에 걸쳐 여러 제약 조건 하에서 복잡한 문제를 다수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
- AI의 경우 기존 학습된 코드 외에 별도의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알파코드는 깃허브에 코드를 자체적으로 생성하고 평가를 반복하며 스스로 코드를 학습하는 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한눈에 보는 2023년 보안 이슈

2023년 사이버 공격 동향이 더 고도화하고 신규 서비스로 인한 약한 고리를 노릴 전망.
클라우드·오픈소스의 약한 고리에 집중할 필요성 제기.

2023년 주요 보안 전망

- 오픈소스 생태계로 인한 보안 위협 진화
-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자 통한 침투
- 서비스형 사이버 공격과 랜섬웨어 변종 지속 유포
- 소프트웨어 공급망 취약점 노린 침투 증가
- 암호화폐 탈취 위해 연계 서비스 노린 공격 증가
-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위협 우려
- 딥페이크, AI 등 신기술 활용한 사회공학적 기법 예상
- 보안·인증기술 우회하는 신규 기법 등장
- 무인매장 등 ICT 도입한 시설에 공격 증가 전망

자료 : 기관·기업 발표 취합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